

올해 파월 의장 발언으로 살펴 본 “Fed 금리 경로” 점검

(2024. 7.11)

I. 파월 의장 “금리인하 시점, 인플레이션 2% 목표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”

- 7.11일(한국시간) 전해진 파월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 발언이 그간 연준 당국자들의 매 파적 시사들과는 다소 배치되는 비둘기 성격으로 인식되며 시장의 9월 Fed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임
- 즉,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2%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표명 (“인플레이션이 2%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”)
-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발언으로 ‘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압력 원천 요인이 아니다’ 라고 한 입장 변화를 통해 금리인하 기반 다지기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임
- 여기에 현 미국 경제 상황이 과열이 아니며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리스크가 아님을 제시,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을 강조

■ ‘24년 파월 의장 주요 발언 정리

- (1월31일) “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다. 인플레이션을 2% 목표로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”
- (2월 4일) “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, 추가 데이터가 필요”
- (2월15일) “경제지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금리인하 가능”
- (3월 7일) “인플레이션이 지속적 2%를 향해 나가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음”
- (3월20일) “현재 금리를 유지하지만 올해 3번의 금리인하를 예상”
- (4월17일) “최근 자료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 필요함을 보여줌”
- (5월 1일) “인플레이션이 2% 목표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”

■ 시장 주요 반응

- 금번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에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시그널을 준 것은 아니라는 평가에 따라 미 국채시장 금리는 잠잠함 속에 소폭 하락 시현
 - 미 10년 국채금리는 최근 4.26%~4.30% 사이에서 등락을 보인 가운데 파월 의장 의회 발언 이후 전일보다 1.8bp 하락한 4.28%를 나타냄
- 달러 가치는 파월 발언 이후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엔화 제외한 주요 통화 가치 상승

■ 평가 및 금리 인하 경로 전망

- 금번 연준 의장 회견을 분석해볼 때,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모두를 주시. 다만, 물가 상승률이 2%를 찍기 이전이라도 고용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
- 특히 회견 내용은 시장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달러 가치 급반등은 제한될 전망 속에 원화 가치도 소폭 강세 전환으로의 흐름 예상
- 다만, 연준 통화정책이 경기 팽창기나 수축기에 연속적 경로를 거쳤음을 고려할 때, 남은 4번의 FOMC중 12월까지 경제 및 고용상황을 주시 후,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인하 단행 후 ‘25년 시작과 함께 연속적 인하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- 이는 4분기 후반까지 시장 금리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게 됨을 뜻하므로 해당 시점을 매파 기조로 시장이 인식할 시, 달러 약세와 원화가치 강세가 제한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